

## 지방자치·종합

## 4·11 총선 현장

## 장병완 "장애인 공약 실현 쇄선"

민주통합당 장병완 광주 남구 예비후보는 22일 "민주통합당이 최근 발표한 '7대 장애인 공약'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민주당이 발표한 공약은 장애인들이 비장애인과 함께 잘 살 수 있는 국가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이를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김영진 "과학기술부 복원해야"

민주통합당 김영진 광주 서구 예비후보는 22일 "차기 정부에서 과학기술부를 복원시켜겠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이날 광주테크노파크에서 (사)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주최로 열린 제19대 총선 예비후보 초청 과학기술정책토론회에서 "국가 미래의 흥망은 과학기술에 달려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이 있기까지는 국가발전의 주역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노력한 과학·기술인들의 기여 때문"이라며 "국가발전의 막중한 책임과 선진국 진입은 우수한 국가 기술력과 다양한 과학 인재 육성"이라고 주장했다.

## 조영택, 광주 교육발전 합의

민주통합당 조영택 광주 서구 예비후보는 22일 장희국 광주시 교육감과 무상급식 확대 및 공교육 정상화 등 민주당에서 추구하는 교육정책과 광주교육발전에 뜻을 함께하기로 합의했다.

조 예비후보는 이날 광주시교육청을 방문, 장 교육감과 만난 자리에서 "교육감이 추구하는 교육정책이 저의 생각과 민주통합당의 방향과도 일맥相通하고 있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양형일 "선거인단 합동접수처 운영"

민주통합당 양형일 광주 동구 예비후보는 22일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이용하는데 불편을 느끼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선거인단 접수를 도와줄 수 있는 '합동 국민선거인 단 현장 접수처'를 운영하자"고 주장했다. 양 예비후보는 "공천혁명을 위해 내세운 국민선거인단 접수가 모 지역에서처럼 유사 선거사무실이나 동원 선거 운동 등 불법 선거운동으로 민심을 왜곡하는 상황까지 발생해 서는 안 된다"며 합동 접수처 운영을 제안했다.

## 정영재 "증기 살려야 경제 민주화"

민주통합당 정영재 광주 동구 예비후보는 "지난 10년간 대기업 일자리가 49만개 감소했지만, 중소기업은 347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며 "중소기업을 살리는 것이 일자리를 위한 경제민주화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정 예비후보는 "대기업 불공정 거래, 하도급으로 99% 중소기업은 경영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며 양극화 현상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박시종 "4대강 심판과 복원이 과제"

민주통합당 박시종 광주 남구 예비후보는 22일 4대강 사업중단 광주·전남 공동행동이 주최한 '4대강 사업 찬동인사 국회 의원 후보 낙천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민주통합당의 19대 국회 첫 과제는 4대강 사업 심판과 복원"이라고 밝혔다. 박 예비후보는 "환경단체에 참여해 영산강사업과 광주호 높이기 사업 반대 활동에 참여해왔다"며 "한명숙 대표가 '4대강 사업 실제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와 청문회 등을 실시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당과 함께 4대강사업 심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이민원 "혁신도시 연계 지역 활성화"

통합진보당 이민원 광주 남구 예비후보는 22일 "중앙정부 예산에 의존하는 것은 남구 재정 문제의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다"며 "나주 혁신도시와 연계한 지역활성화 대책이 남구 지역경제를 살리고 남구 재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남구 솔하, 대촌 등 미개발 지역은 광주와 전남 서·남부를 연계하고 나주 혁신도시의 배후지역으로서 가장 적합한 지역"이라며 "서울 강남 도심과 경기 남부를 연결하는 분당신도시가 블록밸리 될 수 있다"고 밝혔다.

## 서대석 "청소년인터넷 제한 바꿔야"

민주통합당 서대석 광주 서구 예비후보는 22일 "정부가 최근 학교폭력 극단 종합대책 일환으로 발표한 청소년 인터넷 게임 이용시간 제한 규제 방안은 보다 현실성이 있는 대책으로 바꿔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 예비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규제는 오히려 청소년의 성인 개인정보 도용을 부채질하고 국내 게임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원기자 cki@kwangju.co.kr

# "한미 FTA·제주기지 올바른 결정"

이 대통령 취임 4주년 기자회견... 정책 핵심 기조 '불변' 친명

이명박 대통령은 22일 취임 4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정국 혼란과 관련,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보여 파장이 일고 있다.

오히려 이 대통령은 한미 FTA, 제주 해군기지, 원전 건설, 복지 공약 등에 비판적 입장장을 나타내 민주통합당 등 야권이 강력 반발하는 것은 물론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날 이 대통령은 한미 FTA, 제주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 이해찬 전 총리, 유시민 통합진보당 대표 등 야원 지도자의 과거 발언 등을 언급하면서 성토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 FTA나 요즘 현안이 되고 있는 제주 해군 기지는 전 정부에서 결정을 했고, 그 과정을 보면 국가 미래 발전이나 안보를 위해 아주 올바른 결정을 했다"며 "그런데 반대하는 분도 대부분 당시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분들이 서 안타깝다"고 날을 세웠다.

이 대통령은 이어 "한명숙 대표도 2007년 2월 국회 답변에서 해군 기지는 불가피하다고 말했고, 이해찬 전 총리도 '제주가 평화의 섬이라는 이유로 군사 기지 건설이 안 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했다"며 "유시민 통합진보당 대표도 '평화의 섬과 대

양의 평화를 지키는 전진기지가 모순이 되는 않는다'고 말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편중인사 논란과 관련, "의도적으로 특정 학연, 지역에 지장지 않아多样性으로 그렇게 보는 분이 많다면 앞으로 시장해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한명숙 대표도 2007년 2월 국회 답변에서 해군 기지는 불가피하다고 말했고, 이해찬 전 총리도 '제주가 평화의 섬이라는 이유로 군사 기지 건설이 안 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했다"며 "유시민 통합진보당 대표도 '평화의 섬과 대

"마지막 1년마저도 국민과 싸우겠다는 대통령의 결의를 확인한 슬픈 날"이라고 충령했다.

새누리당에서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다. 정무언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글을 올려 "민심에 승복하고 민심을 받아들이는 제2의 6·29선언이 대통령과 당을 위해 필요한 일이라고 수차례 얘기했는데, MB(이명박 대통령)은 그냥 할 말이 없다네요"라며 "이 정도면 MB가 민주당을 밀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게 생겼어요. 세상에 이렇게 민심을 모을수가"라고 꼬집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한미FTA 폐기해야"

광주·전남 예비후보들 주장

정부가 한미FTA 발표일을 3월 15일로 발표한 데 대해 4·11 총선에 나서는 민주통합당 광주·전남 지역 예비후보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박주선 광주 동구 예비후보는 22일 성명을 통해 "한미FTA 날치기로 모자라 밤낮 발표도 날치기"며 "이명박 정권의 한미FTA 날치기 발표를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를 알 수 없다. 국민을 위해 재협상을 해야 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폐기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상갑 광주 서구 예비후보도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가 기습적으로 발표한 한미FTA 조기 발표를 반대한

다"며 "19대 국회 첫 의안으로 한미FTA 발표 중단을 상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자광 광주 서구 예비후보도

"정부가 한미FTA를 내달 15일 밤낮으로 발표한 것은 충분하고 신중한 검토 없이 내린 결정"이라며 "절대 다수 국민이 헌생되는 한미FTA의 밤낮을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를 알 수 없다. 국민을 위해 재협상을 해야 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폐기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갑길 광주 광산구 예비후보도 "국민주권을 포기한 한미FTA 발표

를 즉각 취소하라"며 "한미FTA는 이명박 정부 들어 굵육적인 재협상을 통해 능축이어민, 소상공인, 중소기업인 등 대다수 서민들에게 큰 피해가 돌아가게 한 불평등 조약"이라고 주장했다.

김영근 장흥·강진·영암 예비후보

도 이날 성명을 내고 "민주통합당의 나아갈 길이 뚜렷해졌다"며 "총선·대선 승리로 정권교체를 이뤄 한미FTA를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합진보당 광주시당도 이날 성명을 내고 "말국적 한미FTA, 99% 서민의 마음을 모아 반드시 폐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합진보당 광주시당은 한미FTA를 폐기하기 위해 남은 선거기간 동안 각 선거구별 후보 및 당원들의 1인 시위를 진행하고, 내달 4일부터 대대적인 시민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다.

/최원기자 cki@kwangju.co.kr

## "박원순 아들 MRI

본인 것 맞다

강용석 의원직 사퇴

박원순 시장의 아들이 병무청에 제출한 MRI(자기공명영상진단)가 본인 것이 맞다는 검사 결과가 나왔다.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은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박 시장 아들 주신(27)씨가 이날 세브란스병원에서 촬영한 MRI 영상을 관독한 결과 병무청에 제출한 MRI와 같은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 무소속 강용석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모두 받아들이겠다. 약속대로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美 사우나서 한인이 총기 난사... 5명 사망

### 평소 돈 문제로 불화

미국 애틀랜타에서 한인이 운영하는 대형 사우나에서 21일(현지시각) 밤 한인 일가족 5명이 총격으로 숨지는 참극이 발생했다.

애틀랜타 북부 노크로스 시(M) 경찰은 이날 저녁 8시30분께 노크로스 '뉴포드 하이웨이' 선상에서 한인 강모(65)씨가 운영하는 수경사우나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강씨 등 사우나 건

물 내에 있던 한인 5명이 숨졌다고 밝혔다. 업소 종업원 등 현장 목격자들에 따르면 유력한 용의자는 강씨의 처남 박모(54)씨로, 박씨는 매형과 누나, 여동생 부부에게 총격을 가한 뒤 자신에게 총을 쏘 목숨을 끊었다.

경찰이 입수한 감시카메라 분석 결과 박씨는 8시25분께 사우나 출입문 앞에 있는 계단에서 강씨와 언쟁을 벌이다 총을 쏜 것으로 드러났다.

총격 발생 30분 만에 출동한 경찰

은 사건 현장에서 박씨가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권총 1정을 수거했다. 사건 당시 사우나 건물 안에는 종업원과 고객 등 20여명이 있었으나 박씨는 가족들에게만 총을 쏴 추가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박씨의 범행 동기는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평소 강씨가 박씨 등 처가 식구들 사이에 돈 문제로 갈등이 있었던"다는 지인들의 말로 미루어 금전문제 때문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연합뉴스

### 미 애틀랜타 한인사우나 총격 사건

**노크로스**  
21일(현지시간) 밤 9시께 한인 강모씨가 운영하는 수경사우나에서 강씨와 처남인 박모씨가 돈문제로 다투다 총격. 강씨 기자, 용의자 5명 사망



### (주)호남랜드 태양광발전소 건물 (지붕, 옥상) 임대 구함

#### 위 치 전남지역. 대불공단우선

#### 면적 지붕 및 옥상면적 5,000㎡ (1,500평)이상

#### 임대조건

#### 12년 사용후 건물주에게 기부

#### 임 대 력 별도지급

#### 사 업 성 10,000㎡(3,000평)기준

#### 년1억원 순수익

#### 무안읍 휴게소

무안읍 입구 휴게소 대지 4,666㎡(1,412평).

연면적 1,130㎡(342평). 식당. 매점.

현재 성업 중. 매매가 9억 원.

Tel : 대표. 062-233-2222  
직통 062-373-3939. HP : 010-3616-8698

### 대인동삼일부동산

####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 월성동 1층상가 323평 평당 1, 200만원(38평)  
보증금20억 월임대료 1,200만원  
■ 월성동 1층 상가 121평 평당 1, 730만원(21평)보증금 2억 월임대료 1,200만원

■ 첨단동 1층복합상가 205평 평당 707만원(149평천만) 임대보증금 1억 월임대료 500만원  
■ 첨단동 1층복합상가 120평 평당 790만원(95평천만) 임대보증금 8,000만원 월임대료 500만원  
■ 징동동 1층복합상가 25평 평당 350평(매기5억8천) 임대보증금 9천만원/월임대료 300만원

■ 토지(매매)

■ (상무지구)469㎡(142평)-매기 1, 200만원  
(유동기지) 142평(100㎡)-매기 1, 200만원  
■ (상무지구)833㎡(252평)-평당 1, 200만원(상무지구)(변화경기) 833㎡(162평)-매기 1, 200만원  
■ (상무지구)3,400㎡(약1,000평)-평당 750만원(시청앞) (화성시 옥포포트빌딩)-적립금 1, 200만원  
■ (동일지구) 4,000㎡(1,200평)-매기 1, 200만원(동일지구) (화성시 옥포포트빌딩)-적립금 1, 200만원  
■ (동일지구) 4,000㎡(1,200평)-매기 1, 200만원(동일지구) (화성시 옥포포트빌딩)-적립금 1, 200만원

■ (한국수자원공사) 4,700㎡(1,200평)-매기 1, 200만원(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적립금 1, 200만원  
■ (한국수자원공사) 4,700㎡(1,200평)-매기 1, 200만원(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적립금 1, 200만원  
■ (한국수자원공사) 4,700㎡(1,200평)-매기 1, 200만